

■ **광주일보·비엔날레재단 공동 ‘광주문화포럼’ 제5강**



# “미술품 구입은 미술 미래 위한 투자 사고 팔며 키운 안목, 성장의 원동력”

‘현대미술, 그 중심에서 거닐다’ 한국화랑협회 표미선 회장

“미술품 구입은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국내 미술시장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국내 기업과 컬렉터들이 한국 작가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한국 미술시장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20일 오후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광주문화포럼’ 다섯 번째 강좌에서 표미선(63·표갤러리 대표)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표 회장은 이날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에서 ‘현대미술, 그 중심에서 거닐다’를 주제로 작가, 화랑 관계자, 큐레이터, 시민 등 참석자 200여명에게 현대미술 시장의 유형과 구조를 설명하고 미술품을 고르는 안목 등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강의 중간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최고가 기록’을 세운 작품들과 세계 미술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컬렉터들을 소개했다. 표 회장은 ‘현대미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현대미술은 동시대 미술을 말합니다. 회화,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공공디자인, 설치미술 등 동시대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요. 모호함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현대미술이 오늘날 세계 미술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익에서 수백억, 심지어는 천억을 넘어서는 미술품,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뭘까. 또 그런 가격들은 어떻게 결정될까.

표 회장은 미술품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 그 가격은 작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즉 컬렉터들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모든 미술품은 유일성을 지니고 있어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미학 등 분야에서 희소성이 있어야 하죠. 미술품의 가격은 제작연대, 소재, 재료, 소장 경위 등에 따른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함께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관적 요소인 안목과 경험이에요.”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경험을 통해서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찰스 사치, 래리 가고시안, 프랑수와 피노 등도 긴 세월동안 미술품을 사고 팔면서 그 안목을 키웠다.

이들은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를 보는 안목까지 갖고 있다. 데미안 허스트와 제프 쿤스도 이들이 발굴하고 키웠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 세계 미술시장에서 수백억원을 호가한다.

표 대표는 이들을 소개하며 작가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라”고 조언했다.

“고흐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고흐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 인정받지 못하죠. 고흐와 다른 그림, 남들이 그리지 않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 많은 작가들이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망가뜨리는 짓이에요.”

국내 작가들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작가들만큼 해외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망한 작가들에 대한 기업과 컬렉터들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도 기업들이 나서 세계와 견줄 수 있는 작가를 찾아내 지원하고 키워내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과 컬렉터들도 마찬가지다.

그는 시민들도 미술품을 한점씩 사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산품과 달리 미술품은 소비되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가까이서 보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작품들이 국내 미술시장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광주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꼭 문화 행사를 보고 오십시오. 그렇게 안목을 키워셨으면 합니다.”

광주문화포럼 올해 마지막 강의는 다음달 17일 같은 장소에서 ‘현대미술과 법’(강사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을 주제로 열린다.



20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열린 광주문화포럼에서 표미선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현대미술과 미술품을 고르는 안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발레리나가 된 ‘백설공주’

그린발레단 창작 동화발레, 내일 광산문화회관

‘발레로 만나는 백설공주.’ 광산문화회관을 거점으로 공연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이 창작 동화발레 ‘백설공주’를 23일 오후 4시, 7시30분.

박경숙 교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디즈니 만화영화 ‘백설공주’를 모티브로 안무를 짜고, 음악을 고르고, 작품 전체를 구성했다. ‘호두까기 인형’이 매년 겨울이면 관객들을 만나는 대표 문화상품이듯, ‘백설공주’를 레퍼토리로써서 광주의 대표 가족발레로 만들겠다는 꿈도 갖고 있다.

작품은 프롤로그 ‘마법의 거울’부터 마지막 장면 ‘축제’까지 모두 12신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 발레라는 특성에 맞춘 안무를 구상한 박 교수는 코믹한 난쟁이들의 춤과 여왕이 등장하는 마법의 거울 장면 등에 포인트를 뒀다.

이번 작품에는 지난해 ‘빛의 정원’에서 함께 작업했던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가 다시 합류했다. 진씨는 백설공주가 사는 성(城)을 3D로 보여주는 등 작품에 입체감을 더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주인공 백설공주 역은 신승현씨가 맡았으며 왕자역의 강진규, 마귀할멈역의 조성미, 사냥꾼 역의 벨릭레 노르보예프 등 20여명이 출연한다.

박경숙 교수는 “많이 알려진 동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안무를 짜고 여기에 3D효과가 담긴 영상을 넣어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



## 대통령상 받은 ‘그 춤’

서영무용단 ‘작침’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올해 광주무용계에는 경사가 있었다. 전국무용제에서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무한 광주의 위상을 알렸다.

순천에서 열렸던 올해 행사 수상작은 서영무용단의 ‘작침’. 작품의 내용이 궁극했던 지역민들을 위한 공연이 마련됐다.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진행중인 서영무용단과 박종임씨 등이 22일 오후 7시30분 ‘춤, 오딧세이’를 주제로 공연한다.

서영무용단이 무대에 올리는 ‘작침’은 까치가 동지기를 틀 때 풀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집어넣는 작은 폴킴을 뜻한다. 안무를 맡은 서영씨는 세상사 살아가는 것 또한 자신의 동지에 차곡차곡 엮을 보물이나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초록빛 균열’, ‘분분한 걸음’ 2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연 당시 파워풀한 군무진과 독무신 등이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상주단체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박종임·박선희씨가 안무한 작품들도 무대에 오른다.

전국무용제에서 금상과 안무상을 수상했던 박종임씨는 현대무용 ‘또 다른 누군가’를 공연한다. 하정오·이재민 등 4명의 남자 무용수가 파워풀한 몸짓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상주단체로 함께 활동하는 박선희씨가 제안한 ‘돈키호테’도 눈길을 끈다. 올해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에 입단해 화제가 된 한성욱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김민정씨 ‘2인무’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45인의 시선

정목회 회원전, 27일까지 금호갤러리

문인화단체인 정목회(회장 최향심)가 오는 2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5회 정목회’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문인화가 정암 이병오씨 문화에서 문인화를 배우고 있는 회원들이 2년마다 여는 정기 회원전이다.

고광·김두희·김순탁·김이숙·성은덕·이동선·이미숙·이상희·한길자씨 등 모두 45명의 회원들이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순천만 갈대와 자연을 담은 ‘순천만’을 비롯해 ‘부귀’, ‘응시’ 등 이병오씨의 찬조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심재환씨는 갈나무를 심고 가꾸는 시골 마을의 정취를 은은하게 그렸고, 이미숙씨는 봄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닭 가족의 평화로운 한때를 화폭에 담았다. 문의 062-360-8432. /김경민기자 kki@



최향심 작 ‘그림’

## 화려한 운필... 빛나는 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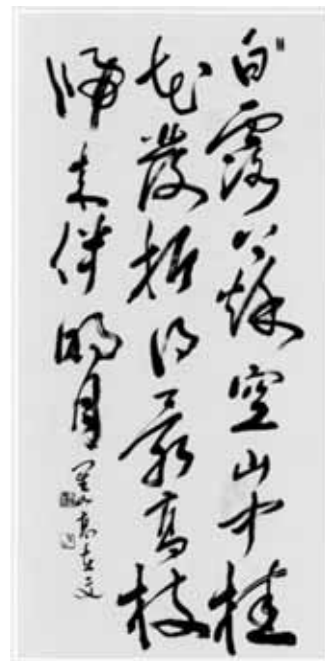
필우회전, 2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필우회(회장 고재문)가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금남로4가 역에 있는 메트로갤러리에서 ‘제36회 필우회전’을 연다.

지난 1977년 창립한 필우회는 삼락서예원 송과 이규형 원장의 제자들로 구성된 서예단체로,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규형 원장을 비롯한 회원 69명이 모두 1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서와 필묵을 벗삼아 지내온 회원들이 지난 1년간 준비한 독창적인 작품들로, 먹의 오채(五彩)와 다양한 운필(運筆)을 감상할 수 있다.

고재문 회장은 “회원 각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서예생활의 자변확대를 위한다는 자세로 심혈을 기울여 작품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223-5480. /김경민기자 kki@



고재문 작

## 담담한 울림 ‘포크 음악’

박광수 콘서트 24일 광주영상예술센터

‘담담하지만 깊은 속내를 들려주는 포크 음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담양 출신 싱어송라이터 박광수 콘서트 오는 24일 오후 5시 광주영상예술센터 영상관(옛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다.

박씨는 ‘2013 광주 가을’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최근 발매한 6집 음반 ‘눈물꽃’ 수록곡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꽃잎’, ‘안녕히’ 등이다.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는 가수는 아니지만 그녀는 언제나 음악과 함께였고,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과 자작곡들로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다. 포크 음악을 들려주는 그녀는 소극장 라이브 무대를 오랫동안 이어가는 중이다.

박광수 팬카페(<http://cafe.daum.net/folkwarrior>). 문의 02-718-34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달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연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http://이파엘지.kr)